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가입 첫 날 어제 금융당국 긴장... "불완전 판매 등 문제점 살필 것"

국민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BSA)가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출금 시간을 앞당겨 오전 7시30분까지 직원들을 소집하는 등 BSA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모두 33개 금융회사에서 BSA 판매를 시작했다.

B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 통장

개념의 정책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자나 농어민 청년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처음 도입되는 BSA 제도에 관한 불완전 판매 등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판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열린 BSA 준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치고 BSA 가입자가 제도 시행 초기에 몰릴 것으로 보고 불완전 판매 등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대응은 BSA 판매 실태를 수시로 살피면서 시기를 정해 미스터리 쇼핑과 불시 점검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제도의 초기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은 최대한 자제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과당 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라며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인진수 기자



3545 세대를 잡아라

골프웨어 TV CF 잇따라 공개

형지(까스텔바작), 케이투코리아(아이드앵글), 펠앤엘(엘브골프) 등이 TV CF를 잇따라 공개하고 골프시즌을 본격 알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골프웨어 브랜드들은 최근 광고에서 젊은 디자인이 어울리는 미녀대회 출신 모델들을 전면에 내세워 봄에 꼭 맞는 피트(Fit)와 세련된 색감을 강조했다.

까스텔바작은 "골프웨어 광고는 골프장에서 촬영한다"는 공식을 깼다. 배우 이하늬가 까스텔바작의 피트감이 뛰어난 의상을 입고 부드럽게 스윙하는 장면에서는 불륨감 넘치는 몸매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예뵤야 골프다'라는 이미지를 잘 전달한다.

아이드앵글은 해외에서 촬영된 골프장의 시원한 배경이 인

상적이다. 미스코리아 출신 김사랑을 모델로 내세웠다.

엘브골프는 슈퍼모델 출신 최여진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일상이 연상되는 실내 스튜디오에 등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골프활동인구는 2010년 460만명에서 2014년 529만명으로 늘었다. 국내 골프웨어 시장규모가 2010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원대로 성장했다.

젊은 골프 세대의 확산에 주목한 면이 크다. 2013년 골프 입문자 중 30대가 35%, 40대가 31%로 나타나는 등 젊은 골퍼들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업계는 과거에는 5060세대가 골프웨어 핵심 소비자였던 반면 현재는 3545세대가 골프를 즐기는 코어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주 기자

전북은행, 완주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로컬푸드 체험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2일 완주군 일대에서 '제18회 JB멘토링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로컬푸드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적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전북은행 직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40여명은 멘토와 멘티로 참여해 유기농 수경재배방식의 딸기수확체험, 농가레스토랑 행복정거장에서 점심식사, 완주로컬푸드 모으집점 견학 및 장보기 체험, 국내산 쌀과 밀을 사용해 만드는 빵 만들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영수 기자

익산국토청 전주사무소 시설물 보수 등 69건 발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올해 상반기에 국도 시설물 보수 통수7천7백여점 및 교차로 개선 등 전체 69건의 공사를 조기 발주한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진안군 등 5개시, 4개군 지역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69건 중 15건은 계속 추진 중인 공사로서 올해 2~3월 중으로 치수분계 약 체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54건은 신규공사로서 올해 6월까지 발주 착공할 예정이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장비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광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마트 임원 고발

"살인기업 처벌하라"

50명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오후 1시30분 "살인 기업을 구속처벌해달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마트 임원 50명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997년부터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자체상품으로 제조하고

판매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자가 속출하면서 타사 살균제 제품과 함께 2011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이마트 상품을 사용한 사람은 총 39명"이라며 "이중 사망자는 10명이고 생존환자는 29명이다. 3차 피해신고접수와 자체 조사한 수치를 합해 추산해보면 사망 15명, 생존환자 87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마트, 코스트코 등 자체 PB 상품을 판 대형마트와 이마트는 입을 다물고 있다. 두 번 다시 생활용품으로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특별수사를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

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제품 판매시점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회사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50명의 동기임원들을 고발해 살인죄로 구속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대상은 현직 7명의 임원과 제품판매를 시작한 1997년 이후 동기 임원을 지낸 정용진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43명 등 총 5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고발한 기업들은 이번을 포함해 205명이다. 이들은 앞서 옥시리얼(벤키지, 롯데,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등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는 15일에는 GS마트, 16일에는 코스트코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급증

2만412가구... 3월대비 63.6% ↑

내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입주물량은 줄어든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412가구로 전월대비 63.6% 늘어난다.

이는 지난 3년간 4월 입주물량 평균치(1만6630가구)와 비교해도 23% 많은 것이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4773가구, 지방은 1만6639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3년 4월(7664가구)이후 매년 4월 입주물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4월에는 이보다 더 감소해 전세년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내달 성동구 '신금호 파크자이' 1개 단지만 입주한다. 경기에서는 하남시 미사지구 '미사강

변동원로얄듀크' 808가구 등 2876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방에서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충남도청내포신도시모아엘가(RH B/L)' 1280가구 등 4567가구가 입주를 한다. 광주 입주물량은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3726가구다. 울산에서는 북구 산하동 '서희스타힐스블루원' 890가구, 충산동 '오도밸리로호성해링턴플레이스' 1059가구 등 2496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의 입주물량은 수성구 만촌동 '만촌차화성파크드림' 410가구 등 1255가구다.

주요 시·도별 입주물량은 ▲경남 867가구 ▲제주 799가구 ▲부산 735가구 ▲전북 521가구 ▲경북 360가구 ▲충북 240가구 ▲전남 83가구 등이다.

/이성주 기자

'템퍼코리아' 전주롯데백 입점

전주 지역 최초로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개 부문 글로벌 브랜드인 '템퍼코리아'가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 지하층 가정매장에 입점했다.

템퍼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선 이착륙 시 발생하는 엄청난 가속력과 압력으로부터 우주비행사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과학적인 신소재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매트리스·베개 브랜드이다.

템퍼는 미국 우주재단(US Space Foundation)의 기술인증 마크 사용을 허가 받은 유일한 침구 브랜드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전주롯데백화점은 오는 17일까지 템퍼 오픈 기념 이벤트를 통해 융폼 및 베개를 제외한 전 제품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채소 가격 고공행진... 한달 새 배추 34.1% 무 32.7% 폭등

2월 배추와 무 소매가격이 전달보다 3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2월 배추 1포기(1950~2000g) 평균 판매 가격은 3445원으로 전월(2569원) 대비 34.1%나 상승했다.

또 무 1개(1500g) 가격은 1714원으로

전월(1291원) 대비 32.7% 올랐다.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 1월 한파와 폭설 등의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배추는 75.1%, 무는 27.8%씩 가격이 올랐다.

쇠고기와 양파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양파와 쇠고기 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9.7%와 15.0%

씩 올랐다. 2월 생필품 중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배추, 무를 비롯해 세면용 비누(+11.4%), 습기제거제(+10.5%), 쌀장(+10.2%), 설탕(+9.5%) 등이었다.

반면 키친타월(-5.1%), 과일주스(-4.7%), 패지고기(-4.1%), 두유(-3.7%), 맛살(-3.2%), 세정제(-3.1%)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주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GRAND OPEN
사전운영기간 2015. 9 ~ 2016. 3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빼어난 백두대간의 모든 것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